토요저널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4면)

송파구의회,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실시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10월 21일 의회 4층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과 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폭력(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채움과 성장 상담센터 대표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박인경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폭력 민감성을 향상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피터 센게의 빙산 이론을 통한 폭력의 구조적 문제 진단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교제폭력 및 스토킹 포함)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점검 및 성 착취 청소년 보호 ▲최신 미디어와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성폭력의 본질 ▲개인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성희롱 예방(2차 피해 방지 및 주변인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손병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다지고, 일상 속 폭력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전문가와 함께 가정폭력부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구조와 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본 만큼, 의원과 직원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의회는 이번 통합 교육을 계기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